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부활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9. 성도여 다 함께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떠났던 우리가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울음을 삼키며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여기 일상의 뒷에 걸려 웃음을 잃었던 우리들이 있습니다. 햇살처럼 환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죽음조차 넘어서는 생명의 신비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일상의 소음 저편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을 열어 진리를 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기적인 자아를 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하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15:14-15	인도자
♠ 교 독 문 62. 부활절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155. 주님께 영광	다함께
성경봉독 요20:11-18	이춘희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여자여, 마리아야!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 현신의 찬송 150. 무덤에 머물러 다함께
- 헌금봉헌<찬양 : 참빛찬양단>..... 다함께
- ♠ 봉 헌 송 69. 나 가진 모든 것(1,2)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 늘 응답하며 사십시오. 죽임의 기운이 넘실거리는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궁극적인 승리를 전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제 안일과 비겁과 두려움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가슴에 하늘을 품은 자의 당당함으로 세상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땀흘리기를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할렐루야!	성서의 평화(22)/김기석 목사
부활소식 전하기	기도 : 이증자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서현 선생 한완식 장로	인도자 이인웅 권사

4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용길	윤성종	최영혜	정경례	김윤정
	헌금위원	구성실	박창운	김준호	김인걸	최영혜	장혜숙

■ 믿/음/으/로/위/는/글/

주여, 당신으로 해서 든든하였나이다

바위셨습니다.

사모님과 외동 따님 박 집사의 바위셨습니다.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파교회 성도님들의 바위셨습니다.

배우고 흠모하던 제자들의 바위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행복하시다”고 감사해 하시고, “교회가 제도나 규칙이 아님을 일찍부터 깨우쳐왔기에 모조록 하늘 뜻 받들어 살기를” 평생 뜻대로 삼으시고, 달려갈 길 달리시던 바위셨습니다.

목회 표어요 사역의 궁극적 목표였던, ‘언제나 어디서나 크리스찬’으로 살도록 가르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며 본을 보이신 바위셨습니다.

소년시절, 전국 체전 체조 링 부문 금메달리스트답게 당당하시던 체구만이 아니라, 인격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바위셨습니다. 동역자들에게 든든한 선배였고, 따스한 동료였으며, 자랑스런 후배이신 바위셨습니다.

김교신이 무교회주의자라고 정죄받자, 우찌무라 간조오의 제자라고 비난을 받자, 김교신이 “내가 우찌무라 선생에게 배운 것은 무교회주의가 아니라 성경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고백했다고 하시면서, “말씀의 길이 목회의 길이요, 말씀의 사람이 목사라고, 그것이 신앙의, 신앙인의 본질”이라고 가르치시던 바위셨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에 서 계셨으나 끊임없는 세상과 존재의 모순과 부조리를 하나님께 질문하시던, 진리의 학교에서 배우시는 평생의 학도로서 바위셨습니다.

언뜻 무뚝뚝하신 듯 보이셨지만, 오히려 그것은 소녀 같은 수줍음이라 할 정도로 조심스러워하시던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 가득하신 섬세한 바위셨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의 율법주의적, 계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과 행태를 탄식하시면서도 인간적 연민으로 염려하시던 바위셨습니다. 스스로 당당하기 이를 데 없는 주님의 종이셨건만, 항상 주님의 심정으로 감리교회와 세속화, 물신화되어 가는 목회 현실을 자신의 책임인 듯 기도하시던 바위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짧디 짧게 던지시던 재치 있는 격려,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 수천 마디의 말보다도 귀한 위로가 되는 한 순간의 손짓, 몸

짓의 격려는 이웃에게 기쁨이었고 큰 힘이 되었던 바위였습니다.

1991년 회갑기념 기도집을 발간하시면서 스스로 정하신 책제목은 목사님의 신앙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목회의 삶의 본질에 대한 신학적 위로였습니다. ‘주여, 당신으로 해서 든든하였나이다,’

그래서 행복하다 하시던 목사님은 확신하신 대로 가르쳐 주시고 증언하신 대로, 주님과 천국에 계십니다. 이 세상에 계시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든든한 구원의 증인으로 우뚝 서신 바위로 계십니다.

평생, 열 아홉 송도중학 예배시간에 첫 대면으로 뵈고 존경하며 사숙하시던 이래, 함석헌 선생님의 자작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를 외우시며, 즐겨 그 마지막 연을 읊으시던 목사님은, 목사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처럼 남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거든 그대는 행복이나라/그도 행복이나라/그 둘을 가진 이 세상도 행복이나라/그러나 없거든 거친 들의 무덤뿐이나라”

목사님께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셨듯,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는 행복했으며, 지금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관식 때, 가시는 송별의 거룩한 자리에서, 평생의 동역자이신 김연기 목사님의 애도와 우정 가득한 트럼펫 연주, 영화 ‘지상에서 영원으로’에서 몽고메리 크립트가 전우를 위해 눈물로 연주하던 그 진혼곡을 들으면서 이 지상의 우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신 목사님. 평소의 목사님처럼 로맨틱하기까지 하셨고, 더욱 자상하시기까지, 죽음이 부활의 다른 이름임을,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절절하게, 절실하게 가슴에 가르치시며 떠나신 스승이시요 바위였습니다.

이제 더는 육체적 질병의 수고가 없는 그곳에서 안식하실, 아픔과 고독을 이겨낸 더욱 자랑스런 바위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남을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두고두고 고백하게 하실 하나님, 목사님을 다시 뵈옵기까지 천국에서 목사님으로 해서 더욱 든든하시고, 그 주님의 든든하신 자랑스러움을 육신의 우리가 살아갈 지상에서의 시간들 위에 햇빛처럼 두루두루 가득하고 따사롭게 하소서. 그 자취의 향기들이 우리로 해서 나누어지게 하소서. 정녕, 우리가 그분의 격려와 가르치심의 사람이어든 그렇게 민들레 씨앗처럼 온 누리에 나누어지게 하소서.

(이 글은 성광교회 황문찬 목사님께서 기독교타임즈에 투고하신 추모문입니다.)

부활절에

김현승

당신의 핏자욱에선/꽃이 피어—사랑의 꽃이 피어
땅 끝에서 땅 끝에서/당신의 못자욱은 우리를 더욱
당신에게 열매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은 천하에 계십니다—두루 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으나,
당신은 그 손의 피로/로마를 물들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유대인의 옛 수의를 벗고
모든 4월의 관에서 나오십니다.

모든 나라가/지금은 이것을 믿습니다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모든 나라의 합창은 우렁차게 울려납니다.

해마다 3월과 4월 사이의/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이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筍으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리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